

나라는 달라도 부처·조사의 가르침은 하나

한·중 천태종 사부대중
국청사 조사기념당 개금 회향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왼쪽) 국청사 방장 가명 스님 (오른쪽)



국청사 조사기념당에서 봉안된 천태지자 대사상(가운데)의천대각 국청사상(오른쪽) 상월월각 조사상

중 국청사서 5월 16일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도

한국 천태종과 중국 천태종 본산 국청사가 천태조사 선양사업을 통한 양국간 우애를 다졌다. 한국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방장 가명)는 5월 16일 천태지자 대사, 의천대각 국사, 상월원각 조사를 모신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회향법회 및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국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윤덕 前 총무원장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과 교무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용암 스님, 규정부장 영제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성지순례차 참석한 신도 250명이 동참했다. 중국 국청사에서는 방장 가명 스님과 감원 윤관 스님, 수좌 극해 스님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점안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에 이어 중국불교식 점안의식과 한국 불교식 점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는 △권공축원 △국청사 방장 커밍 스님 법어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법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천태조사의 법광이 시방을 비추니 중도(中土)로부터 해동이 이르기까지 만 중생이 이 법에 의지해 해탈을 얻으니 모두가 환희하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1995년 양국 천태종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한·중 조사기념당을 세워 역대 조사들의 공덕과 범력을 기린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 역시 요익중생의 미래 불사를 담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청사 방장 커밍 스님은 “지자 대사의 법은 우주 법계의 으뜸이요, 시시때때로 법을 설하시니 미혹의

마음이 열리고, 팔만의 강과 모래, 먼지를 모두 멸하고 천태지관문으로 들어가셨네. 의천·원각 조사가 그 법을 받들어 한국에 천태의 법을 전파해 중생을 구제하네”라고 법어를 했다.

이에 앞선 15일, 국청사 환영만찬에서 중국 국청사 감원 윤관(允觀) 스님은 “한·중 천태종 교류는 1400년 전부터 이어졌다. 최근 세계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노력은 16년 전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으로 다시금 시작됐다”며 “이런 교류는 황금 유대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천태종 간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 이해,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한국의 사부대중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중국 국청사와 한국 천태종이 역사적으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는 등 과거의 깊은 인연에 기인한다”며 “서울 연등축제에 원광 스님(국청사 감원) 등 중국 천태종 일행이 참석할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 천태종이 한집안과 같이 우의를 다져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타상 보제사 방장 스님과 원광 모습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법어 모습

법회 후, 천태종 사부대중은 천태산 지자육신탑(智者肉身塔)을 참배했다. 해발 1400m 고지에 자리한 지자육신탑은 지자 대사 입적 후 대사의 법신을 보관한 곳이다.

이후 국청사 일정을 모두 마친 천태종 사부대중과 성지순례단은 17일 구화산, 아미산, 오대산과 함께 중국 4대 불교성지로 손꼽히는 관음성지 절강성 보타산을, 18일 항주 영은사, 영복사, 19일 무석 범궁 등을 참배했다. 절강성=조동섭 기자

■국청사 한·중 조사기념당은?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 한·중 조사기념당은 한·중 천태종이 공사비를 공동 부담해 2년 간의 공사 끝에 1995년 6월 17일 낙성했다. 국청사의 가장 위 건물인 관음전 왼편에 중국 전통 사찰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조사전은 건평 232㎡ 규모로, 천태조사 세분의 청동좌상이 모셔져 있다.

조사당 중앙에는 천태종을 창시한 수나라 지자대사상이 그 오른쪽엔 한국에 천태종을 개입한 대각국사상, 왼쪽엔 근대 한국 천태종의 증후조인 상월원각대조사상이 봉안됐다. 상의 크기는 지자대사상 190cm, 대각국사와 상월원각대조사상은 각각 180cm이다. 각 상의 뒤편에는 조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벽면에는 한국과 중국 천태종의 법통 계승과정의 도표로 그려져 있다.

“한·중·일 한자리서 지자 대사 열반 기릴 것”

국청사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주도한 총무원장 정산 스님

“16년 전 중국 국청사에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건립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양국간 협력관계가 이번 개금불사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한·중·일 천태종이 지자 대사 열반재를 함께 봉행하는 등 천태종간 국제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해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까지도 수행으로 팔팔 무쳐있는, 당시 중국불교와 차별화된 한국 천태종의 모습에 크게 감명 받았다. 조 회장은 그러한 모습이 천태종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라는 3대지표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중일 3국 천태종 교류에도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중국과 일본 천태종 스님을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천태종은 지진 복구로 1명만 참석해 아쉬움이 있었다. 중국 천태종은 국청사 감원 윤관 스님 등 8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지자대사 열반일에 한·중·일 3국 천태종이 국청사에서 함께 법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공동학술대회를 열자는 제안도 이미 해두었다”고 말했다.

중국 국청사는

한·중·일 3국 천태종의 발원지이다.

진나라 선제 태건 7년(서기 575년) 천태종 개창조인 지자 대사는 천태산에 자리를 잡았다. 선제는 지자 대사를 위해 천태산에 ‘수선사’를 지었다. 지자 대사는 수선사에서 10년 간 수행 후 진나라 5대왕 후주의 간청에 금릉(현재 남경)으로 자리를 옮겨 불경을 강의했다.

자 대사는 행각을 떠났다. 수 문제 개량 15년, 지자 대사가 10년간의 행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선사는 황폐해져 있었다. 지자 대사는 복원에 나섰지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원적에 들었다. 수양제는 “절이 완공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에 복원을 지원하되, ‘국청사’로 부르게 했다.

국청사는 천태종 제16조인 의봉보은 존자가 법맥을 이은 곳이다.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수행하기도 했다.

일마 후 진나라는 수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지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점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안산 월광사

연등승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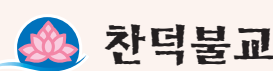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